

태안 앞바다 고선박 2척 추가 발견

고려·宋·青 도자기 380여점도 발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 고선박 2척이 추가로 발견됐다.

고려, 조선, 송, 청에 이르는 11~18세기의 도자기 380여 점이 함께 밭굴에 이곳 해역이 둑북 아 해상 무역의 중요 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나준)는 2일 「태안군 근흥면 미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밭굴 조사 결과 선박 2척이 매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진 못 했지만 배 밑(저판) 5단과 좌우 외판이 각각 2단씩 남아 있었다. 이 고선박에서는 선적 상태인 청 자작 등 60여 점과 선원들이 뛰어온 380여점의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충남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이건무 문화재청장 등이 태 안군 근흥면 미도 해역에서 밭굴 된 380여점의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있다.

또 중국 도자기는 송대 이후 명, 청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를 인양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한식 발굴과장은 「이 지역이 국제 무역 항로의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주변 어민들이 어파리 청자 조각을 찾아 신고해 오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 달돌이 많이 발견된 것은 이 해역에 침몰한 배가 더 있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 관람료

8000원 7년만에 인상

「영화 관람료 8천원 시대.」

광주 지역 영화 관람료가 7년만에 인상됐다. 광주 지역 극장의 성인 요금은 지난 2002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오른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2일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 0 시를 기해 영화요금을 1천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영점인 CGV 광주터 미널점은 영화요금을 1천원씩 인상했다. 성인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청소년과 조조는 7천원과 5천원으로 올랐다.

타 극장과 달리 심야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야 요금도 8천원으로 인상됐으며 애니맥스관은 현재처럼 1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반면 위탁점인 CGV 첨단점은 당분간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CGV의 요금 인상을 계기로 광주도 요금 인상 러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극장들은 「당분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극장 관계자들은 시기만 조금 다를 뿐 대부분의 극장이 요금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GV 체인에 앞서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요금을 1천원씩 인상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씨너스가 광주 지역을 인상 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CGV가 이번에 물꼬를 튼 만큼 인상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메가박스는 이미 서울·수원·대구 지역 체인 극장들의 요금을 인상했고, 롯데시네마는 서울·경기 지역은

물론 전주와 순천 지역 요금까지 인상했지만 광주는 제외했다.

씨너스는 요금 인상 극장을 서울·경기로 제한했었다.

「트랜스포머」 등 극장의 주수입원이 되는 블록버스터들이 쓰아지는 7·8월에 요금을 올릴 경우 인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극장 관계자는 「광주가 극장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라 지역 극장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금이 인상된지 너무 오래 됐는데 블록버스터들이 쓰아지고 있어 전제적으로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관들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할인 혜택은 많이 줄었는데 요금만 올리는 건 말이 안된다」 「경제도 어려운데 1천원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승례문 현판 복원

전교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당국 교사 징계 맞서 ‘2차 시국선언’

교육당국의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와 겸찰 고발에 반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제2차 시국선언문을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으로 「교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교사를 대량 징계

한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징계 철회, 교육복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으로 「교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교사를 대량 징계

/연합뉴스

승례문 현판 복원

오는 7일부터 전시

승례문 화재 현장에서 건진 유일한 진품이라고 할 만한 「승례문 현판」이 최근 수리 복원을 끝내고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일)까지 경복궁 안국립고궁박물관 2층 중앙홀에서 특별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는 복원된 현판과 함께 그 복원 과정, 옛 사진을 비롯한 승례문 현판 관련 고증자료, 화재 수습 당시의 현판 모습 등이 선보인다.

현판 복원에는 중요무형문화재 각 자장(刻字匠), 단청장(丹青匠)으로 각각 지정된 오옥진씨와 흥창원씨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알림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종교칼럼’은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틀어주는 수행과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17면 오피니언면에 실리는 종교칼럼이 3일부터 새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종교칼럼에 변함 없는 관심 바랍니다.(기나다 순)



김선명 교수



박철수 신부



백남선 목사



현지 스님

◇김선명 교수(영광 영산교당 교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졸업 ▲청주교당 부교무 ▲영산선학대학 교수

◇박철수 신부(산수동성당 주임신부)

▲복포 삼학도성당 주임신부 ▲광주 동립동성당 주임신부 ▲전주교 광주대교구 사무국장

◇백남선 목사(광주기독교단협의회장)

▲미국 버리리칼 신학대학원 졸업 ▲기독신문 논설위원 ▲광주 미문교 담임목사

◇현지스님((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법주승가대학 졸업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광주 원효사 주지

光州日報社

동구 문화센터 문열었다

- 김종두



바야흐로 5無시대

동구 문화센터 문열었다

2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문을 연 동구문화센터 개관식에서 문화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2.88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동구문화센터는 105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문화교실과 수영장, 헬스장, 소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갖췄다.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1면 ‘영산강’서 계속

수질이 나빠지면서 떠난 것은 어류 뿐만이 아니다. 5~6년 전 까지만 해도 청동오리와 고니 등으로 뒤덮일 정도로 유명한 철새 도래지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밭길이 뚝 끊겼다. 며칠마다 물길이 뚝 끊겼다. 며칠마다 물길이 크게 줄어서다.

그래도 아직 청동오리와 고니 등이 간간이 영산강을 찾는 것으로 보아,

영산강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으로 예정됐던 이번 영산강 탐사는 탐사선 한 척이 중도에 밤이 둑이면서 결국 사포나루에서 마무리됐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폭 200m가 넘는 강이 이 정도로 수심이 알아진 것은 수십 년 동안 강 밑 바닥에 쌓인 퇴적물 때문”이라며 “유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려면 준설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척의 탐사선에 나눠 타고 나주 석

관정까지 거슬러올라가는 것으로 예정됐던 이번 영산강 탐사는 탐사선 한 척이 중도에 밤이 둑이면서 결국 사포나루에서 마무리됐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폭 200m가 넘는 강이 이 정도로 수

심이 알아진 것은 수십 년 동안 강 밑 바닥에 쌓인 퇴적물 때문”이라며 “유

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려면 준

설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3일

2009년 7월 3일